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강사트레이닝」

“민주적인 갈등해결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여성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전쟁에 반대하고 폭력문화를 평화문화로 바꾸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산하 갈등해결센터가 진행 중인 갈등해결프로그램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통해 평화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노력으로 현재는 '갈등해결강사트레이닝'이 열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6개월 동안 열리는 이 수업을 지난 달 19일 찾아가, 박수선 갈등해결센터 소장을 만났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장충동에 있는 한 강당을 찾았다. '갈등해결강사트레이닝'이 진행되는 곳이었다. 역시 이번 수업의 시작 전에도 한 사람의 분노가 가져온 끔찍함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를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수업에 모여 앉은 사람은 15명 정도. 이들이 수업 받는 내용은 살아가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특히 이번 갈등해결강사트레이닝 과정을 마친 이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창의재량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약 18명 정도가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이 중 현직 교사들도 여럿 있다. 이날 진행하는 수업은 창의재량수업 첫 시간에 아이들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첫 대면의 어색함을 깰 수 있는 여러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참석자들의 발랄한 참여 분위기 속에서 넘쳐 나왔다.

이런 수업이 6개월간 진행되는데 ▲갈등해결 개념 이해와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 이해 ▲의사소통기법-적극적 듣기, 나 전달법, 대화 속에 가시빼기 등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말하는 법과 듣는 법 훈련 ▲편견, 고정관념 등의 부작용 이해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제도,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변화 노력 ▲분노 조절-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났을 때 행동을 객관화 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모색 ▲갈등해결의 기초인 협동적 협상을 배움과 중재-역할놀이를 통해 포래중재를 실습하면서 포래 중재의 적용 가능성 논의와 미국의 포래중재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진행될 때는 창의재량수업에 적용 가능 하도록 보다 구체적이다.

수업은 약 3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연속 진행되었

지만 전혀 지루함 없이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하게 진행된 후 끝이 났다. 수업 후 갈등해결센터의 소장이자, 우리나라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선구자 켈이 될 박수선(38)씨를 만나 보았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서 갈등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여성회는 폭력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데,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육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여러 다양한 정책 중 하나가 갈등해결이죠. 우리 여성회 산하에 갈등해결팀을 꾸리고 활동하다가 미국 친우봉사회 존 페퍼라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갈등해결 연수를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활동가들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갈등해결강사트레이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다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갈등은 민주적 참여로 풀어야 해결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갈등해결이라는 기술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양한 관계와 차이가 갈등을 가져오고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존의 가치죠.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는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를 일깨우는 과정인 거죠. 인간 누구나 존엄하다는 것과 같은 맥이에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누구나 창의적인 대안을 낼 수 있다는건데 단지 훈련받지 않아 그것을 일깨우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 때 어려운 점은

“먼저 갈등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경직되거나 폭력적이거나 회피하는 식등이라면 갈등이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은 필연적이며 여러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갈등이란 한정된 자원으로 서로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인데, 만약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이익을 이해하고 난다면 보다 해결의 길은 넓어집니다. 정답은 없어요. 당사자가 만족하면 됩니다.”

현재 중심으로 활동하는 분야는 교육 같은데

“현재 청소년 평화교육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는 중입니다. 교사 대상 워크숍, 아이들 대상 평화교육, 교감 자격연수 등을 진



갈등해결강사트레이닝 수업장면

행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관용과 배려를 배우고 평화 감수성을 키워나가고, 나아가 평화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에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스스로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맞는 평화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 관악고등학교에 창의재량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관악고는 인권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인권정보반이라는 특별활동반도 있어요. 이번 학기에 1학년에게 일주일에 2시간씩 갈등해결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이번 강사트레이닝을 거친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겁니다. 앞으로 학교 내 평화교육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고 또래중재 같은 프로그램도 실시되어야 할 텐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죠.”

일반 사람들이 갈등해결을 하고자 할 때 원칙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갈등해결프로그램을 너무 방법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환상을 갖게 되죠. 앞서 계속 말했지만, 단순히 기술이 아니니까요. 보통 갈등을 해결하는 데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하고, 두 번째가 명분이나 입장을 떠나서 서로의 실익을 따져야 하며, 세 번째가 창의적이며 상생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 네 번째가 객관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원칙을 곰곰이 생각하고 따르길 바라고요, 역할극 같이 서로가 입장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나가 나누고 나머지 하나가 선택하는 방법 같은 것도 좋지요. 이걸 두 사람이 서로 빵을 많이 먹으려할 때 한 사람이 빵을 나누게 하고 나머지 하나가 먼저 선택하게 하는 방법인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예요.”

사회적 갈등해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앞으로 계획은

“정부는 산하에 각종 환경분쟁, 노사정, 언론중재 등 갈등해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위원회가 당사자간에 중재를 하기 보다는 판결에 가깝게 활동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올한해는 청소년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직 내 갈등해결, 의사소통 등 민주적 조직문화를 위한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실제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갈등을 드러내고 풀어주는 역할도 해야 하고요. 직장이건 교육현장이건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평화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갈등해결 워크숍 참가기

“내 안의 폭력을 본다”



박인혜

“역시 갈등이 원인이야.”

개그우먼 L씨 폭력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던 나는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에 스스로 놀랐다. 이전 같으면 가해자 남편에 대한 분노로 흥분했을 텐데 교육의 힘인지 어느새 변해 있는 내가 신기하게 느껴진다.

제작년쯤엔가 나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주최로 ‘땅땅이와 쑥쑥이’라는 아동극을 공연한 적이 있다. 이 작품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기획된 작품이다.

소재 자체가 어른인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기에 나름대로 고민하던 나는 직접적인 남북한 이야기보다 우화기법을 통한 양식이 효과적이겠다 싶어 토끼들과 호랑이를 등장인물로 한 인형극을 만들게 되었다. 공연을 앞두고 평화여성회 회원들과 시연회를 가졌는데 공연 도중 꼬마 관객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생기더니, 공연 후 평가에선 작품이 폭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이었다. 공연 중 아이들이 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으나, 작품이 폭력적이라는 평가는 소수 의견이기는 해도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다.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걸 보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느냐.” “중간에 삽입된 그림자극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등 이리 저리 추측을 해 보았지만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다. 싸움장면을 어떻게 평화적으로만 풀어갈 수 있는 건지, 평화여성회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이 정확히 들어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어쨌든 이 정도는 무난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등에 업고 ‘땅땅이와 썩썩이’는 한 달가량의 순회공연을 했고, 공연 평가는 대부분 좋은 쪽으로 나왔다. 허나 공연이 끝난 후에도 작품 생산자의 한사람인 나로서는 고민이 가시질 않았다. ‘어떻게 해야 평화적인 작품이 될 수 있을까.’

궁하면 통한다던가. 하반기 인형극 재공연을 앞둔 작년 여름, 나는 평화여성회에서 주최한 ‘갈등해결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워크숍을 통해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선 ‘갈등유형 대응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는 갈등 초기에는 협동 하다가 고조시에 회피하는 유형으로 나왔다. ‘내가 회피형이라니…….’ 그 결과가 내겐 충격으로 다가왔고, 회피 또한 일방적 무시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갈등하면 싸움이나 분쟁만 연상하던 나는 갈등(葛藤)이라는 한자말이 ‘참나무와 등나무가 얽혀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말에 ‘공존 공생’의 느낌과 함께 ‘갈등’이 삶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몇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신만이 옳다는 신념이 강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평화교육’ 시간에는 전쟁이나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인 폭력에 의해서도 우리 삶이 얼마나 황폐화 되는 지 알 수 있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존중감 -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이 폭력을 막는 길이며, 이를 위한 평화 문화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 작년 여름 워크숍은 내가 그 동안 얼마나 폭력에 노출되어 살았는지를 일깨워 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특히 아동극에서 왜 평화적 감수성을 요하는지도 깨닫게 되는 기회였기에, 하반기 인형극을 준비할 때는 나름대로 평화적 양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새해 들어 나는 본격적인 갈등해결 교육을 받고 있다.

‘갈등해결’이라는, 제목 그 자체가 행복한(?) 교육을 받고 다니며 거듭 거듭 깨닫고 가끔 속으로 울기도 한다. 나의 일상이 굳어진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 얼마나 폭력적인지…….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교육받는 순간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거구나’ 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여전히 혼자 포기하기도 한다.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내 안의 분노는 커져가고, 그럴 때마다 사나워지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하지만 오늘도 또 노력해 본다. 나를 앞에 두고 멋대로 떠들고 싸우는 어린애들을 보며 소리 지르지 않고, 다시 약속을 정해서 연극놀이 수업을 해보며 다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계속 노력해 보는 거야.’

그런데 갑작스레 TV에서 흘러나오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며 숨이 턱 막혀온다. 한 사람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재앙을 어찌할 것인가. 너나 할 것 없이 폭력에 무디어져 사는 우리들.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진다. 본능적으로 대구 후배에게 전화를 돌리며 간절히 마술을 걸어 본다.

‘꿈은 이루어진다. 부디 평화롭기를!’